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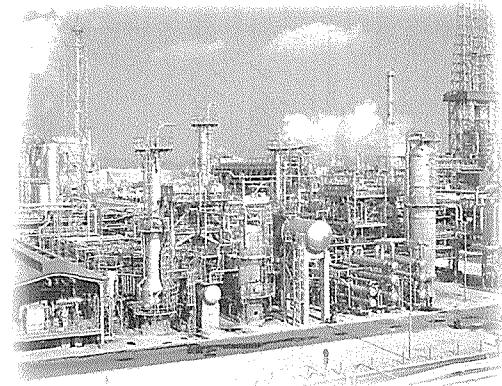
## 현대정유, 한화에너지 인수

5대 그룹은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정유부문)를 인수하는 등 7개 과잉·중복투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합의해 지난 9월 3일 발표했다.

손병斗(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의해온 주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5대 그룹이 구조조정에 합의한 업종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 △정유등 7개 업종으로 관련회사는 총 17개사(자동차 제외)이다. 구조조정방법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은 콘소시엄, 보일러 및 선박용 엔진은 사업양도, 그리고 정유는 합병방식을 선택했다.

그동안 국내외에 합작 또는 매각을 추진해 왔던 한화에너지를 현대정유가 인수함에 따라 국내정유업계는 4사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국내정유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2백 43만8천b/d의 국내 석유정책능력은 세계 4대 메이저의 1개 업체 평균정책능력 3백18만3천b/d의 76% 수준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번 사업구조조정으로 업체당 정책능력을 배가시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용이하게 하며, 대외 개방 이후 예상되는 치열한 경쟁구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구조조정으로 환경규제 및 연료규격 강화를 충족시키 위한 고도화시설(분해·틸황시설)의 중복 투자가 해소돼 1조원 이상의 투자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연간 2억5천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와 함께 원재료 도입비용 및 물류비용, 인건비·일반경비 절감 등으로 연간 4백9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주요 석유메이저의 정책능력

(단위 : 천B/D)

	로얄 더치 셀	엑슨	모빌	BP	국내 5사
정책능력	4,237	4,241	2,256	2,000	2,438